노(能) 〈하시벤케이(橋弁慶)〉 인물상 연구

李允智*
survivan@korea.ac.kr

Contents

1. 들어가며
2. 만남의 유형과 그 계기
3. 우시와카마루(牛若丸)의 인물상과 그 조형 의도
4. 개변 및 인물상의 미화
5. 맺음말을 대신하여

Abstract

源義経の第一の家来といえばやはり西塔の武蔵坊弁慶である。小柄な優男と荒々しい大男との対比は面白く、彼らをめぐる伝説は古くから芝居や物語に取り上げられ、人々に広く親しまれてきた。能<橋弁慶>はこの牛若丸(後の義経)と弁慶の出会いを描く、いわゆる「橋弁慶伝説」に題材をとった曲である。弁慶が牛若丸に敗れて主従の契りを結び、生涯の部下となったという話でよく知られている。一般的には、京の五条橋で人を斬り続けていた弁慶を、そこに通りかかった牛若が屈服させ家臣にしたとされているが、実は伝説によっていくつかのバリエーションがあり、これがまた能や幸若舞曲・御伽草子等様々な芸能・文学に様々な形で取り入れられた。その受容の仕方に焦点を当て、創作意図を探っていきたい。

筋が単純で分かりやすい小曲であるが、その明解な印象とは裏腹にかなり複雑な成立過程をたどっていると推定される。本稿では、能<橋弁慶>の諸本異同と、観世流に小書として残されている<笛の巻>との関係をめぐってその成立と変遷の過程を検討し、その中で登場人物はどのように造形されていくのかについて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Key Words : 橋弁慶、判官物、源義経、武蔵坊弁慶、義経伝説、能
Hashi-Benkei, Hogan-mono, Minamoto no Yoshitsune, Musashi-bo Benkei, The Legend of Yoshitsune, Noh Play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일본중세문학 전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 들어가며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経)에게는 사토 쓰구노부(佐藤継信)[1]·다다노부(忠信) 형제, 이세 요시모리(伊勢義盛) 등의 충신들이 따르며 그의 활약과 고난을 함께했다고 전해지나, 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면 역시 무사시보 벤케이(武蔵坊弁慶)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노(能) <하시벤케이(橋弁慶)>는 바로 이 벤케이와 요시쓰네의 만남을 그린, 소위 하시벤케이 전설(橋弁慶伝説)을 소재로 삼고 있다.

『노혼사쿠샤추몬(能本作者註文)』에는 작자 불명, 『지카덴쇼(自家伝抄)』에는 사아미(佐阿弥) 히요시 시로지로 야스키요(日吉四郎次郎安清) 작으로 전한다. 현행 공연 시간이 40여 분에 불과한 소곡으로, 거한 벤케이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를 농락하는 소년 우시와카마루(牛若丸)의 탁월한 무예를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곡의 볼거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장의 우시와카마루와 벤케이의 대결이다.

특별히 복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 곡이 아님에도 비교적 제본(諸本)에 따른 이동(異同)이 많은 곡이다. 특히 전장 모두의 [나노리(名ノリ)]와 후장 우시와카의 등장 시 [잇세이(一セイ)]에 있어 현행곡(現行曲)의 유파에 따라서도, 에도 시대(江戸時代)의 제본에 따라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카이 다카미쓰(伊海孝充)가 지적[2]한 바 있어, 노 <하시벤케이>의 첫 성립 이후 현재의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성립 과정에 있어 상당한 굴곡이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본곡의 등장인물인 시테(シテ)와 고카타(子方)의 인물상 조형 및 그 변화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 노 <하시벤케이> 및 <후에노마키(笛の巻)>의 사장(詞章) 인용은 현행 간제류(観世流) 우타이본(謡本)을 기준으로 하는 『謡曲二百五十番集』(赤尾照文堂, 1978)[3]에 의한다.

---

1) 「つぎのぶ」로 읽기도 한다. 『平家物語』에서는 「嗣信」로 표기하고 있다.
2) 伊海孝充(2004) 「謡曲<橋弁慶>の展開 —牛若・弁慶邂逅譚の一視点—」 『日本文学誌要』69、法政大学国文学会、pp.33-34
3) 野々村戒三 編・大谷篤蔵 補訂(1978) 『謡曲二百五十番集』 赤尾照文堂、pp.480-48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 만남의 유형과 그 계기

먼저 본곡의 주인공, 즉 시테인 무사시보 벤케이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오슈(奥州) 고로모가와(衣川)에서 요시쓰네와 더불어 최후를 맞기까지 충의를 다한 가신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사실 역사적으로 그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전해지는 바가 없다.

『아즈마카가미(吾妻鏡)』에 기록된 요시쓰네의 도성 출발 행렬의 면면을 통하여 그의 존재 자체는 확인되나 보다 상세한 기술은 없고, 가쿠이치본(覚一本)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등에 의하면 이치노타니 전투(一ノ谷の戦い)가 벌어지기 전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지방 토박이[4]를 데려오는 장면과 노 <쇼존(正尊)>의 소재가 된 도사보 쇼슌(土佐坊昌俊)의 암살 미수 사건에 그 이름을 드러낼 뿐, 특별한 무공이나 활약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실록(実録) 속에서는, 그리고 요시쓰네가 문학적 소재로 수용되기 시작한 『헤이케모노가타리』 성립 시기에는 극히 존재감이 희박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요시쓰네 전설이 역사적 기록이 부족한 유년기와 실의기를 중심으로 난립하게 되었던 것처럼, 실제 사적이 전무하다는 점은 도리어 그의 캐릭터 조형에 상상력이 자유로이 발휘될 여백을 제공했다. 해사한 청년의 이미지가 강한 요시쓰네와 대조적으로 굴강한 승병(僧兵)의 이미지로 조형된 그는, 주군과 나란히 요시쓰네 전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수많은 문학과 예능에서 충성과 용맹, 혹은 익살과 재치로 또 하나의 주역으로서 그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

특히 실의기를 소재로 하는 전설이나 문예 속에서는 비운의 귀공자로 현저히 무력화하는 요시쓰네의 캐릭터를 대신하여 그가 나서서 스토리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의 호간모노(判官物) 속에서도 벤케이의 비중은 그 주군을 비롯한 여타 등장인물을 압도하는 것으로, <아타카(安宅)>처럼 시테로 등장하는 곡에서는 물론 <쇼존>[5]<후나벤케이(船弁慶)> 등 와키로 등장하는 곡에서도

4) 요시쓰네(義経)의 가신 중 하나로 알려진 와시오 요시히사(鷲尾義久) 및 그 부친 다케히사(武久).
5) 현행곡의 곤고류(金剛流) 및 곤파루류(金春流)에서는 벤케이(弁慶)를 시테(シテ), 쇼존(正尊)을 쓰레(ツレ)로 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시테를 능가하는 활약을 보이고 있다.

단, <하시벤케이>의 경우 시간적 배경이 우시와카 시대, 즉 요시쓰네가 아직 「소년」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작품과 구별된다. 역시 유년기 전설을 소재로 삼고 있는 노 <구라마텐구(鞍馬天狗)>나 고카타의 졸업곡이라 불리는 노 <에보시오리(烏帽子折)>와 마찬가지로, <하시벤케이>의 우시와카 역시 어느 정도 기량을 갖춘 고카타가 담당할 수 있는 곡이다. 애당초 벤케이를 쓰러뜨려 가신으로 삼은 우시와카의 재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하시벤케이 전설의 주역은 요시쓰네라고 할 수 있고, 본곡의 고카타 또한 시테와 대등한 비중으로 극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노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시테인 이상, 결과적으로 우시와카에게 패할지언정 극의 균형 및 주인공으로서의 위상을 무너뜨리지 않을 벤케이의 조형이 요구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벤케이에게는 무엇보다 「강자(強者)」라는 이미지가 있다. 서구에 「Achilles' tendon(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는 「弁慶の泣きどころ(벤케이의 약점)」[6]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처럼 벤케이는 그리스 신화 속의 아킬레우스와 마찬가지로 일단 그 무용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다. 또한 『기케이키』 등에 묘사된 범상치 않은 출생과 그 성장 과정, 학문과 무예에 빼어난 재능을 발휘하면서도 난행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르는 벤케이의 캐릭터는, 시마즈 히사모토(島津久基)의 비유와 같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의 장비(張飛), 『수호지(水滸誌)』의 노지심(魯智深)・이규(李逵)・무송(武松) 등과 통하는 성급한 난폭자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7] 난폭한 호걸풍의 승려가 아직 절의 지고(稚児)에 지나지 않는 가냘픈 소년에게 고삐를 잡히고, 그에 감복하여 충성을 맹세한다는 이 전설의 근저에는 엄숙한 군신의 서약이라기보다 지혜로운 약자(小)가 어리석은 강자(大)에 승리한다는, 유머러스한 동화적 발상이 결부되어 있다. 안에서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밖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우치벤케이(内弁慶)」 「가게벤케이(陰弁慶)」 「고타쓰벤케이(炬燵弁慶)」와 같은 단어도 벤케이의 강자적 면모에 그에 대한 익살스런 이미지가 더해져 파생

6) 벤케이 정도의 호걸일지라도 차이면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급소라는 의미에서 정강이 부위, 나아가 단 하나의 약점을 뜻한다.
7) 島津久基(1977、再版)『義経伝説と文学』大学堂書店、pp.143-14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된 단어이며, 하시벤케이 전설이야말로 그와 같은 이중적 인물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 <하시벤케이>의 경우 벤케이의 익살꾼(三枚目)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고조텐진(五条の天神)에 기일을 정하고 참배를 올리던 벤케이가 만원(満願)의 날이 되어 신사를 찾으려 할 때, 종자에게서 고조 다리(五条の橋)에서 행인을 공격하는 수수께끼의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곡이 시작된다. 그 소문을 듣고 일단 참배를 단념하려던 벤케이였으나 금세 생각을 돌이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그리고 까닭 없이 행인을 덮치는 흉한(凶漢)을 퇴치하기 위하여 예정대로 길을 나선다.

シテ 「그렇다면 오늘 밤은 그만두기로 하자. 아니지, 벤케이 정도의 자가 그런 말을 듣고 달아나서야 분한 일이지. 오늘 밤이 깊으면 다리로 가서 그 괴물 같은 녀석을 해치우리라.

シテ 「さあらば今夜は思ひ止まらうずるにてあるぞ。いや弁慶ほどの者の、聞き遁げは無念なり。今夜夜更けば橋に行き、化生の者を平らげんと。

能<橋弁慶>

야음에 숨어 사람을 베고 돌아다니는 우시와카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자(化生の者)」이며, 벤케이는 소위 악을 물리치는 용자와도 같은 입장이다. 고조 다리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그려진다.

シテ 「(전략)……갖춰 입은 무장은 검은 가죽 끈으로, 위세 좋게 얽어 맨 커다란 갑옷. 구사즈리(草摺) 길게 차려 달고서, 평소 즐겨 휘두른 큰 나기나타(薙刀), 자루 중간을 쥐어 어깨에 메고, 유유히 느긋하게 나서는 모습, 어떠한 천마 귀신(天魔鬼神)일지라도 맞설 수 없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믿음직스럽고, 상대할 만한 적을 만나고파라.

シテ 「(前略)……着たる鎧は黒革の、をどしにをどせる大鎧。草摺長に着なしつゝ、もとより好む大薙刀、真中取つて打ちかつぎ、ゆらりゆらりと出でたる有様。いかなる天魔鬼神なりとも、面を向くべきやうあらじと、我が身ながらも物頼もしうて、手に立つ敵の恋しさよ。

能<橋弁慶>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곡은 다르지만 마치 <구라마텐구>의 우시와카와 대구를 이루는 듯한 묘사이다.

고카타 「그리하여 샤나오(沙那王)의 모습을 보자면, 연한 붉은빛 홑옷에 문양을 넣은 비단 히타타레(直垂), 소매를 끈으로 묶어 어깨에 걸고, 흰 실로 엮은 몸통 갑옷에 생나무 자루의 나기나타,

지우타이 「설령 천마 귀신이라 할지라도 이러하랴, 아라시야마(嵐山)[8]의 산벚꽃과 같은 화려한 모습이로다.

子方 「さても沙那王が出立には、肌には薄花桜の単に、顕紋紗の直垂の、露を結んで肩にかけ、白糸の腹巻白柄の長刀、

地謡 「たとへば天魔鬼神なりとも、さこそ嵐の山桜、はなやかなりける出立かな。

能<鞍馬天狗>

화사한 소년의 경장에 대한 진중한 무장으로, 거대한 나기나타나 갑옷, 긴 구사즈리 등으로 자연스레 당당한 체구를 연상케 한다. 우시와카와 대조적이면서도 마찬가지로 「천마 귀신에게도 뒤지지 않을」 용자(勇姿)를 갖추고 있다.

또한 우스기누(薄衣)로 모습을 숨긴 우시와카를 발견했을 때에도, 여성에게는 접근하지 않겠노라는 승려의 자세를 다짐한다. 어디까지나 근실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적어도 『기케이키』『벤케이모노가타리(弁慶物語)』 등에서 보이는 난폭자의 인상은 전혀 없다. 더불어 『기케이키』에서는 이들의 두 차례에 걸친 대결 후 벤케이의 기량을 깨닫고 그를 가신으로 삼기를 원한 쪽은 요시쓰네이다.

공자(=요시쓰네)께서도, 「무어라 해도 저 녀석은 대단한 자로구나. 아아, 동이틀 무렵까지 있으면 좋으련만. 저 녀석의 대도(大刀)와 나기나타를 물리치고 가벼운 상처를 입혀 사로잡아, 홀로 돌아다니는 것도 지루하니 가신으로 삼아 부려야겠다」하고 생각하셨다.

御曹司も、「何ともあれ、彼奴は異の者かな。あはれ暁まであれかし。持ちたる太刀、長刀打ち落として、薄手負ほせて生け捕りにして、独り歩くは徒然なるに、

8) 현재의 교토 시(京都市) 니시쿄 구(西京区)에 있는 산. 벚꽃과 단풍의 명소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相伝にして召し使はばや」とぞ思はれける。

『義経記』巻第三 弁慶義経に君臣の契約申す事

그러나 <하시벤케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시쓰네가 벤케이를 가신으로 삼았다기보다 소년의 비범함을 간파한 벤케이가 우시와카를 주군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우타이 「사이토의 무사시, 벤케이라 하오. 서로 이름을 밝히고, 서로 이름을 밝히고, 항복하겠소이다 용서하시오. 보기 드문 분, 나는 출가한 몸, 지위도 가문도 무용도 빼어난 주군이시니 의지하겠소. 경솔한 자라 여기실는지도 모르나, 이 또한 삼세에 걸친 인연의 시작. 지금 이후로는 주종이라고, 주군과 가신 굳게 언약을 맺고, 주군께 우스기누 씌워 드리고, 벤케이도 나기나타 어깨에 메고, 구조(九条)의 저택으로 함께 향했다.

地謡 「西塔の武蔵、弁慶なり。互に名告り合ひ、互に名告り合ひ、降参申さん御免あれ少人の御事、われは出家、位も氏もけなげさも、よき主なれば頼むなり。粗忽にや思しめすらんさりながら、これ又三世の奇縁の始、今より後は、主従ぞと、契約堅く申しつゝ、薄衣被かせ奉り弁慶も薙刀打ちかついで、九条の御所へぞ参りける。

能<橋弁慶>

결론적으로 노 <하시벤케이>의 시테는 『기케이키』, 오토기조시(御伽草子) 등의 벤케이에 비하여 전혀 희화화되고 있지 않으며, 하시벤케이 전설 본래의 동화적 분위기도 상당히 희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라는 극이 희극적 요소가 희박한 장르라는 특징도 있어, 난폭한 거한이 총명한 어린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마는 골계적인 이미지는 가급적 배제되고, 어디까지나 극의 주인공으로서 화려한 대결의 무대를 마련해 주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단, 벤케이가 이와 같은 인물로 조형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싸움을 주도한 것이 벤케이가 아니라 우시와카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 <하시벤케이>의 경우 고조텐진에 참배를 드리러 가는 벤케이를 우시와카가 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격하는 것으로 그들의 대결이 시작된다. 그러나 사실 하시벤케이 전설은 수용 문학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 ㉠참배 장소-고조텐진, 기요미즈데라(清水寺), 주젠지(十禅寺) 등
> ㉡참배를 올리는 사람은 요시쓰네인가 벤케이인가.
> ㉢공격의 주모자는 요시쓰네인가 벤케이인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 ㉣만남(=대결)의 횟수가 일회인가 복수인가.
> ㉤대결 장소-고조 다리, 고조텐진, 기요미즈데라, 기타노텐만구(北野天満宮) 등
> ㉥시간적 배경은 우시와카(소년) 시대인가 요시쓰네(성년) 시대인가.

일반적으로 「고조 다리에서 벌어진 우시와카와 벤케이의 대결」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처럼 현존 문학의 다양한 유형을 볼 때 본 전설은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 발전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가령 『기케이키』의 경우 참배를 올리는 쪽은 요시쓰네이며, 천 자루의 칼을 모으기 위해 행인을 습격(千本奪い)하는 벤케이가 마지막 칼을 요시쓰네에게서 빼앗으려 드는 것에서 그들의 대결이 시작된다.

> 벤케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껏 힘깨나 쓰는 자들의 칼도 빼앗았거늘 하물며 이 정도로 가냘픈 사내라면 다가가서 협박하는 말에도 모습에도 지레 겁먹고 내놓으리라 생각했다.
>
> 弁慶少しもひるまず、さしも異なりげなる人の太刀をだにも奪ひ取る、ましてこれら程なるやせ男、寄りて乞はん声にも姿にも怖ぢて出ださんずらん。
>
> 『義経記』巻第三 弁慶洛中にて人の太刀を奪ひ取る事

이처럼 『기케이키』의 벤케이는 「난폭한 승려(荒法師)」로 조형되어 있고, 그를 퇴치하는 입장인 요시쓰네에게 행위에 대한 정당성의 추가 기울고 있다. 반면 <하시벤케이>의 시테에게서 싸움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벤케이의 인물상 미화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이카이 다카미쓰는 다양한 문예 속에 나타나는 하시벤케이 전설을 그 대결 장소와 만남의 형태, 공격의 주도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에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잔(叡山)・산노(山王) 신앙, 하치만(八幡) 신앙, 관음(観音) 신앙・고조텐진 신앙 등이 결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9] 그에 의하면 노 <하시벤케이>는 두 사람의 만남을 고조 다리로 하며, 그 횟수는 한 차례, 그리고 우시와카 쪽이 공격의 주모자라는 유형을 취하는데, 이 유형을 수용한 작품에는 그 내용에 에이잔・산노 신앙의 일단이 엿보이는 경우가 많으나 앞에서 인용했듯이 「고조텐진」을 벤케이의 참배 장소로 하는 현행 간제류의 대사는 그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곤파루류(金春流)의 대사는 다음과 같이 참배 장소를 기타노(北野)→주젠지로 하고 있으며, 호쇼류(宝生流)에서는 반대로 주젠지→기타노로 하고 있다.

시테 「이 몸은 사이토의 무사시보 벤케이외다. 나는 숙원하는 바가 있어 그 동안 기타노에 17일간 틀어박혀 기도를 올렸소. 또 오늘 밤부터는 주젠지에 참배해야겠다고 생각하오. 거기 누구 있느냐. (하선 인용자, 이하 동일)

シテ 「これは西塔の武蔵坊弁慶にて候。われ宿願の子細あるにより、この間北野へ一七日参篭申して候。また今夜より十禅寺へ参らばやと存じ候。いかに誰かある。

能<橋弁慶>金春流

시테 「이 몸은 사이토 기타다니(北谷)에 사는 승려, 무사시보 벤케이외다. 나는 숙원하는 바가 있어 그 동안 히가시야마(東山) 주젠지에 17일간 틀어박혀 기도를 올렸소. 또 오늘 밤부터는 기타노에 축시(丑時) 참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오. 거기 누구 있느냐.

シテ 「これは西塔北谷の住僧、武蔵坊弁慶にて候。我宿願の仔細あるにより、この程東山十禅寺に、一七日参籠申して候。また今夜より北野へ丑の時詣で仕らばやと存じ候。いかに誰かある。

能<橋弁慶>宝生流

9) 요시쓰네와 벤케이의 만남의 장소에 특정 신앙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로는 八木直子(2004) 「弁慶物語 ―出会いの場面について―」『甲南女子大学大学院論集 文学・文化研究編』2、甲南女子大学 등의 논고도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상의 대사에서 보이는 「주젠지(十禅寺)」는 히가시야마라는 위치에서 생각할 때 아와타구치(粟田口)의 주젠지샤(十禅師社)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케이키』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언제쯤 내려가려는가」 「내일은 길일이라 하니 형식으로나마 길을 떠나는 의식을 치르고 모레에는 반드시 내려가고자 하옵니다」라고 말씀을 올리니, 「그렇다면 아와타구치 주젠지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시어, 기치지는 「알겠나이다」라고 답한 후 물러갔다.
>
> 「何時の頃下らんずるぞ」 「明日は吉日にて候ふあひだ、形の如くの門出で仕り候ひて、明後日は必ず下り候はんずる」と申しければ、「さらば粟田口十禅寺の御前にて待たんずるぞ」と宣ひければ、吉次、「承り候ひぬ」とて、下向してげり。
>
> 『義経記』巻第一 遮那王殿鞍馬出の事

히가시야마 주젠지는 히에산노(日吉山王)의 섭사(摂社)[10]로, 아와타구치 쇼렌인(青蓮院)이 엔랴쿠지(延暦寺)의 삼대 몬제키(門跡)[11] 중 하나였던 연고로 그 토지신(鎮守神)을 모시는 신사로서 히에주젠지(日吉十禅師)를 권청(勧請)[12]한 것이다. 이카이는 주젠지와 히에이잔의 관계로 볼 때 히에이잔 사이토 출신으로 전해지는 벤케이가 그에 참배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로써 <하시벤케이>에서도 에이잔・산노 신앙의 영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13]

에이잔・산노 신앙이 결부되어 있다면 히에이잔 출신인 벤케이의 인물상이 중시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결과 요시쓰네가 악역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히에이잔의 승려인 벤케이가 밤마다 행인을 공격하는 요시쓰네를 퇴치하기 위하여 나선다는 스토리는 요시쓰네보다 벤케이 쪽이 보다 주인공에 가까운 입장

10) 본사(本社)에 부속되어 그 제신(祭神)과 연고가 깊은 신을 모신 신사(神社). 사격(社格)은 본사와 말사(末社)의 중간.

11)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이후 황족・귀족 등이 출가하여 거주한 특정 사원, 또는 그 주지를 가리킨다.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이후로는 사원의 격식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히에이잔(比叡山) 엔랴쿠지(延暦寺)는 천태종(天台宗)의 총본산이며, 그 삼대 몬제키가 쇼렌인(青蓮院)・산젠인(三千院)・묘호인(妙法院)이다.

12) 신불의 분신(分身)・분령(分霊)을 타 지역에 옮겨 모시는 것.

13) 伊海孝充(2004) 「謡曲<橋弁慶>の展開 —牛若・弁慶邂逅譚の一視点—」 『日本文学誌要』69、法政大学国文学会、pp.36-3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보이며, 벤케이를 시테로 삼아 그의 시점에서 묘사되는 노 <하시벤케이>가 산노 신앙 계열의 전설을 수용한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었다고 할 것이다.

3. 우시와카마루(牛若丸)의 인물상과 그 조형 의도

그렇다면 시테인 벤케이에 대하여 우시와카마루, 즉 요시쓰네의 캐릭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시벤케이 전설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그 공격의 주모자와 목적에 따라 크게

㉠노 <하시벤케이> 등으로 대표되는 요시쓰네의 쓰지기리(辻斬り) 혹은 센닌기리(千人斬り)
㉡『기케이키』 등으로 대표되는 벤케이의 센본우바이(千本奪い)

의 두 갈래로 나뉜다.

<하시벤케이>의 우시와카가 고조 다리를 지나는 행인을 공격하는 이유는 사장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헤이지모노가타리(平治物語)』에서도 학문에는 뜻을 두지 않고 무예나 놀이에만 열중하는 우시와카를 그리고 있으나, 이것은 그와 비교가 불가능한 악행이다.『기케이키』 등에서 공격의 주모자를 벤케이로, 그리고 그 목적 또한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센닌기리가 아니라 보다 완곡한 센본우바이로 설정한 것도 요시쓰네 측에 영웅다운 인상을 부여하고 동기의 잔혹성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라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시쓰네의 센닌기리 전설이 생겨나고, 또 <하시벤케이> 등의 문예에 수용된 근본적인 까닭은 무엇일까.

요시쓰네의 센닌기리에 대해서는 오토기조시『덴구노다이리(天狗の内裏)』에서

부친의 13주기 공양으로 고조 다리에서 천 명을 베어라. 999명을 쓰러뜨린 후 구마노(熊野)의 벳토(別当)[14] 단조(湛増)의 적자, 무사시보 벤케이가 나타날 것이

14) 승려의 관직. 도다이지(東大寺)・고후쿠지(興福寺) 등의 대사원에서 일체의 사무를 총괄했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죽이지 마라, 살려서 부하로 삼아라. 이후로 내내 그대의 도움이 될 것이다.
父が十三年の教養に、五条の橋にて千人斬せよ。九百九十九人斬つて後、熊野の別当湛増が嫡子、武蔵坊弁慶が来るべし。打つな、助けて被官にせよ。後々までも御身が用に立つべきぞ。 『天狗の内裏』

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으며, 사람을 죽여 고인의 명복을 비는 습속 내지 전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15] 아마도 센닌기리라는 고난도의 과제를 마련하여 요시쓰네의 초인적인 무예와 부친을 비롯한 겐지(源氏)의 패망에 대한 복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다소 야만적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전설의 피비린내는 벤케이라는 호걸을 멋지게 쓰러뜨려 첫 번째 부하로 삼는다는 화려한 피날레로 무마되고 있는 것이다.

나카무라 가즈모토(中村一基)는 『기케이키』에서 이들의 대결이 기요미즈의 참배객들에 둘러싸여 이루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두 사람의 싸움은 거의 예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요시쓰네가 벤케이와 싸운 후 「밤새도록 이렇게 놀고 싶지만(夜すがらかくて遊びたくあれども)」이라고 말하며 싸움을 「유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16]

그 계기의 잔인성이야 어떻든 관객들 역시 이들의 싸움이 생사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상호간에 유쾌하고 밝은 결말」에서 연유하는, 마치 스포츠 경기 관람과도 같은 상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더구나 <하시벤케이>는 『기케이키』처럼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을 위한 대본이다. 『기케이키』 속의 참배객들이 기요미즈데라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싸움을 구경하던 것처럼, <하시벤케이>의 관객들은 노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대결을 만끽한다. 아사미 가즈히코(浅見和彦)의 해설을 빌리면 「여기서는 투쟁을 ≪악≫으로 삼아 위험 행위로 간주하는 시선은 소실된 상태이다. 벤케이라는 ≪악≫과, 요시쓰네라는 그 위의 ≪악≫이 칼날을 맞대는 활극을 추구하며 즐기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이미 구경거리로서의 ≪악≫」[17]인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다. 이후 구마노(熊野)・이와시미즈(石清水)・기타노(北野) 등의 신사에도 두었다.

15) 島津久基(1977、再版)『義経伝説と文学』大学堂書店、pp.307-308

16) 中村一基(2007)「飛翔する≪笛吹き童子≫～芸能神義経の誕生～」『岩大語文』12、岩手大学、p.3

17) 浅見和彦(1994)「都市人の夢と遊楽 ―「義経記」と「一寸法師」―」『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 무대 위에서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활극에 열중한 나머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선악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관객이나 독자의 수용 의식을 차치하고, 노 <하시벤케이>에서 벤케이에 비하여 우시와카의 캐릭터가 허술하게 취급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가신의 그릇은 그 주군이 될 요시쓰네의 인물상과 직결되는 것이다. 노 <에보시오리>의 구마사카 조한(熊坂長範)이 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쓰네의 상대로 부족하지 않을 용맹하고 자부심이 강한 걸물로 묘사되는 것처럼 무사시보 벤케이의 미화 또한 그를 쓰러뜨려 부하로 삼은 요시쓰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마즈 히사모토의 표현과 같이 「곡 속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도 없는 (혹은 생략된) 그대로 해석하면 이유도 없이 고조 다리 위에서 행인을 베는 생각 없는 인간(愚物)」[18]이라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하시벤케이>에서 벤케이의 인물상을 중시한 것은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시와카가 고카타, 즉 아역인 이상 그가 이 곡의 주역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은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시벤케이 전설은 결코 유년기, 즉 「우시와카 시대」에 한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성 안 고조의 다리 위에서(京の五条の橋の上)」로 시작되는 심상소학창가(尋常小学唱歌)[19] 「우시와카마루(牛若丸)」의 가사를 보더라도 우시와카와 벤케이의 대결은 일본인의 뇌리에 깊게 뿌리박혀 있고, 현재의 교토(京都) 고조대교(五条大橋)에 설치된 석상도 소년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어령(李御寧)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 회색빛 식민지 교실에서 글을 익히기 시작한 어린이의 눈에 제일 먼저 비친 일본의 모습이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중략)……내가 제일 먼저 만난 일본인도 벽에 걸린 노기(乃木) 대장이나 조회 시간마나 국민 선서를 선창하는 대머리 일인(日人) 교장 선생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인사를 나눈 최초의 일본인들은 옛날이야기의 주인공들인 잇슨보시(一寸法師)이며 모모타로(桃

究』39(1)、学灯社、pp.54-60

18) 島津久基(1977、再版)『義経伝説と文学』大学堂書店、pp.312-313

19) 1911년부터 1914년에 걸쳐 문부성(文部省)이 편찬한 심상소학교(尋常小学校) 창가(唱歌) 교과서. 앞서 편찬된 『심상소학독본창가(尋常小学読本唱歌)』를 계승한 것이다. 제1학년용에서 제6학년용까지 전6권. 1권에 따른 수록 곡수는 20곡.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太郎)였다. 그리고 긴타로(金太郎)와 우시와카마루와 대나무에서 나온 엄지손가락만한 가구야히메(かぐや姫)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면 모두가 '작은 거인'들이라는 점이다.[20]

이렇듯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사실 이 작은 영웅의 동화적 전설은 그의 허구적 일대기 속에서도 다루기 곤란한 대상이다. 가령 이처럼 구라마데라(鞍馬寺)의 지고 시절의 우시와카가 벤케이를 쓰러뜨려 가신으로 삼았다면, 그 후 그가 구라마야마(鞍馬山)를 탈출하여 오슈로 향하는 도중의 사건을 그린 에보시오리 전설(烏帽子折伝説)이나 구마사카 조한 전설(熊坂長範伝説) 등과 모순을 낳고, 게다가 오슈에서의 세월 중 벤케이의 거취가 문제가 된다. 하시벤케이 전설과 마찬가지로 유년기 전설에 속하는 에보시오리 전설, 구마사카 전설 등은 소년 시절 요시쓰네의 불우함 내지 잠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 탁월한 가신의 존재는 이들 전설의 재미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껏 화려하게 등장한 벤케이의 캐릭터는 요시쓰네가 겐지의 총대장으로 세상에 나오기까지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기케이키』를 통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그 해도 저물어, 나이 열일곱이 되셨다. 그대로 세월을 보내고 계셨으나, 히데히라(秀衡)는 아무런 의견도 꺼내지 않았다. 공자께서도 「어찌 해야 할까」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차라리 도성에 있었다면 학문도 하고 보고 싶은 것도 보았을 텐데,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다. 도성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 야스히라(泰衡)나 도모히라(知衡)에게 말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알리지 않고 가리라 마음먹고, 잠시 외출하시는 듯 꾸미고 곧장 도성으로 올라오셨다.

かくて今年も暮れければ、御年十七にぞなり給ふ。さても月日を送り給へども、秀衡も申す旨なし。御曹司も、「いかがあるべき」とも仰せられず。なかなか都にだにもあらば、学問をし、見たき事をも見るべかりしものを、かくても叶ふまじ。都へ上らばやとぞ思し召しける。泰衡、知衡に言ふとも叶ふまじ。知らせずして行かばやと思し召し、仮初の御歩きの様にて、やがて京へ上らせ給ふ。

『義経記』巻第二 義経はじめて秀衡に対面の事

20) 이어령(1994, 재판)『축소지향의 일본인』기린원, p.2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우시와카가 아니라 관례를 치르고 성인이 되어 오슈에서 지내고 있던 요시쓰네가 잠시 교토로 올라온다. 그리고 계략을 통하여 오니이치호겐(鬼一法眼)[21]이 지니고 있던 육도(六韜)의 병서를 손에 넣고, 벤케이를 부하로 삼아 다시 오슈로 떠나는 것이다. 시마즈 히사모토가 요시쓰네 전설을 시대별로 정리함에 있어 하시벤케이 전설을 유년기 끝에 별도로 배치[22]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시와카 시대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으나, 내용의 전후로 보아 『기케이키』와 같이 성년 이후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용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시벤케이 전설이 유년기 전설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역시 이것을 우시와카와 벤케이의 대결로 그린 노 <하시벤케이> 등의 영향이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당시의 대중 및 관객이 벤케이의 상대로 원한 것은 역시 요시쓰네보다는 우시와카마루였을 것이다.

> (전략)……젊은이가 흰 히타타레에 흉판(胸板)이 은으로 빛나는 몸통 갑옷을 입고, 황금으로 장식한 대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근사한 것을 차고 있었다.
>
> 벤케이는 이것을 보고 「훌륭한 칼이로구나. 어떻게 해서든 손에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다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시무시한 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벤케이가 그것을 어찌 알았으랴.
>
> (前略)……若き人の白き直垂に胸板白くしたる腹巻に、黄金作りの太刀の心も及ばぬを佩かれたり。
>
> 弁慶これを見て、「あはれ太刀やな。何ともあれ、取らんずるものを」と思ひて待つところに、後に聞けば、恐ろしき人にてぞおはしける。弁慶はいかでか知るべき。
>
> 『義経記』巻第三 弁慶洛中にて人の太刀を奪ひ取る事

아무리 벤케이에게 거한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도 『기케이키』의 내용과

---

21) 「きいちほうげん」으로 읽기도 한다. 『기케이키(義経記)』, 노(能) <단카이(湛海)> 등에 등장하는 전설상의 인물로, 비장하던 육도의 병서를 요시쓰네에게 도난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22) 후시미토키와 전설(伏見常磐伝説)→구라마텐구 전설(鞍馬天狗伝説)→기이치호겐 전설(鬼一法眼伝説)→요시쓰네 시마와타리 전설(義経島渡伝説) 및 우시와카 지고쿠마와리 전설(牛若地獄廻伝説)→조루리히메 전설(浄瑠璃姫伝説)→구마사카 조한 전설(熊坂長範伝説)과 야마나카토키와 전설(山中常磐伝説) 및 세키하라요이치 전설(関原与一伝説)→하시벤케이 전설(橋弁慶伝説), 의 순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같이 이미 어엿한 무사로 성장한 요시쓰네와의 대결이라고 하면 소년 대 어른이라는 압도적으로 불리할 듯한 도식에서 오는 신비감을 줄 수는 없다. 본곡은 요시쓰네가 아닌 우시와카마루를 택하면서부터 그의 초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대가 어린아이라는 점에서, 벤케이 쪽이 먼저 그를 공격할 명분이 사라진다. 『기케이키』와 같이 무장한 청년의 모습이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아무리 난폭한 악승(悪僧)일지라도 아이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은 이후 요시쓰네 최고의 가신으로 일컫게 될 그의 인물상과 어울리지 않는다.[23]

따라서 <하시벤케이>에서 요시쓰네의 쓰지기리 패턴을 수용한 것은, 요시쓰네를 아역으로 세우기 위하여 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으리라 추측되며, 시테의 인물상도 그에 수반하여 조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시쓰네의 쓰지기리는 단순한 우행(愚行) 혹은 악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를 「소년」의 모습으로 벤케이라는 가신과 만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노에서 아역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존재 자체로 무대의 화사함을 더하는 역할인 것이다. 게다가 <하시벤케이>의 우시와카는 우스기누로 모습을 감추고 있어, 벤케이는 그를 여인으로 착각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은 『기케이키』에서 유리노 다로(由利太郎) 일당이 가가미의 숙소(鏡の宿)를 습격하는 부분의 묘사를 연상케 한다. 요시쓰네의 외모는 일찍이 『헤이케모노가타리』에서

> 엣추 지로 효에(越中次郎兵衛)가 말하기를, 「이왕이면 총대장인 미나모토노 구로(源九郎)와 붙어 보시오. 구로는 얼굴이 희고 키가 작은데 앞니가 유난히 튀어나와 확실히 알 수 있답디다. 단지 히타타레와 갑옷을 항상 바꾸어 입는다니 구분하기 어려울 것도 같소만」이라고 했다.
>
> 越中次郎兵衛申しけるは、「おなじくは大将軍の源九郎にくん給へ。九郎は色し

23) 하시벤케이 전설 수용 문학에서 요시쓰네가 소년, 즉 우시와카마루(牛若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 만남의 동기가 주로 우시와카의 쓰지기리(辻斬り)로 설정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 추측된다. 단 오토기조시(御伽草子) 『벤케이모노가타리(弁慶物語)』의 경우 우시와카의 쓰지기리와 벤케이의 센본우바이(千本奪い)라는 목적이 충돌하며, 이로써 양측 모두 행동의 정당성을 구할 수 없다. 게다가 벤케이의 난폭성이 어느 작품보다도 강도 높게 나타나며, 우시와카에게 패한 후 그의 신기(神技)에 놀라 자신의 악행을 반성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ろう、せいちいさきが、むかばのことにさし出でて、しるかんなるぞ。たゞし直垂と鎧を常に着かふなれば、きッと見わけがたかん也」とぞ申しける。

『平家物語(覚一本)』鶏合 壇浦合戦

와 같이 폄하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호간비이키(判官贔屓)의 감정이 그 근저에 깔린 『기케이키』에서는 인용한 바와 같이 그의 미모에 관한 찬사가 이어지며, 도적들도 그를 여인으로 여기고 그대로 지나치려 한다.

남도(南都)[24]와 산문(山門)[25]에까지도 소문이 자자한 지고가 이틀 전 구라마(鞍馬)를 나온 것이니, 피부가 매우 흰데다 이를 검게 물들이고, 엷은 화장에 눈썹을 가늘게 그리고 장옷을 쓰고 계신데, 그 모습 마쓰라사요히메(松浦佐用姫)[26]가 목에 두른 흰 천을 흔들던 산에서 돌이 되어 세월이 흐른 듯 보이고, 잠결에 흐트러진 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썹은 휘파람새의 날갯짓에도 흐트러질 듯 보인다. 현종 황제(玄宗皇帝) 때라면 양귀비(楊貴妃)라고도 할 것이라. 한(漢)의 무제(武帝) 시대라면 이부인(李夫人)인가 하고 의심할 것이다.

南都、山門までも聞こえたる稚児の、一昨日鞍馬を出でたることなれば、きはめて色白く鉄漿黒に、薄化粧して眉細くつくりて、衣引きかづき給ひたりければ、姿松浦佐用姫が領巾振る山に年を経て、寝乱れ髪の隙より、乱れて見ゆる黛、鶯の羽風にも乱れぬべくも見え給ふ。玄宗皇帝の時ならば、楊貴妃とも言ひつべし。漢の武帝の世なりせば、李夫人かとも疑はる。

『義経記』巻第二 鏡の宿吉次が宿に強盗の入る事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등의 왕조 모노가타리에도 곧잘 엿보이는, 성별이 불분명한 미모에 대한 동경이다. <하시벤케이>에는 <구라마텐구>처럼 그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대사는 없고 단지 벤케이의 착각에 대하여 언급될 뿐이나, 관객의 뇌리에는 이미 선행 전설 및 관련 문예로 인한 우시와카의 미소년

24) 나라(奈良)의 도다이지와 고후쿠지.
25) 히에이잔 엔랴쿠지.
26) 전설상의 인물. 연인인 오토모노 사데히코(大伴狭手彦)가 신라(新羅)에 출정(出征)할 때, 마쓰라야마(松浦山)에 올라 히레(領巾; 나라 시대(奈良時代)로부터 헤이안 시대에 걸쳐 성장(盛装)한 부인이 어깨에 걸쳐 좌우로 길게 늘어뜨린 얇은 천)를 흔들며 이별을 안타까워하다가 그대로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만요슈(万葉集)』『고콘초몬주(古今著聞集)』 등에 보인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미지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같은 아역일지라도 <구라마텐구>의 후장에서처럼 당당한 소년 무사의 모습으로 묘사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미」와 「소년」의 가련한 이미지가 행인 살해라는 음산한 분위기와 반대로 이 장면에 화려함을 부여한다.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연약함으로 행동의 잔인성을 불식하는 동시에, 벤케이의 투박함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천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4. 개변 및 인물상의 미화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나 노 <하시벤케이>에는 기묘한 대사가 삽입되어 있다. 후장의 고카타 등장 시의 대사와 마지막의 행동 묘사가 그것이다.

고카타 「그리고 우시와카는 어머님의 말씀이 무거우니, 날이 밝으면 절로 돌아가겠소. 오늘 밤까지라니 아쉽게 여겨, 고조의 다리에 나가 서서……(후략)

子方 「さても牛若は母の仰の重ければ、明けなば寺へのぼるべし。今宵ばかりの名残なれば、五条の橋に立ち出でて……(後略)

지우타이 「(전략)……주군과 가신 굳게 언약을 맺고, 주군께 우스기누 씌워 드리고, 벤케이도 나기나타 어깨에 메고, 구조의 저택으로 함께 향했다.

地謡 「(전략)……契約堅く申しつゝ、薄衣被かせ奉り弁慶も薙刀打ちかついで、九条の御所へぞ参りける。

能<橋弁慶>

이 곡 어디에도 「어머니의 말씀」이나 「구조의 저택」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 고조 다리에 나타나 행인을 베는 수수께끼의 소년이라는 것만이 전장의 설명이다.

물론 노는 전거를 중요시하여 100% 창작에 의한 곡은 거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작자는 관객의 상식 및 공통 인식을 의지하여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도 한정된 무대에 있어 불필요한 서술을 생략하며, 그것은 일종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고와카부쿄쿠(幸若舞曲)에 있어 호간모노에 속하는 작품들의 첫머리를 보면 이하와 같이 접속어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去程に、常葉御前は、程なく……
그러던 중에 도키와 고젠(常葉[27]御前)은 얼마 지나지 않아……
幸若舞曲「常葉問答」

㉡さる間、牛若殿、鞍馬の寺東光坊にで……
그러는 동안 우시와카 님은 구라마의 절 도코보(東光坊)에서……
幸若舞曲「笛の巻」

㉢さる間、牛若殿、鞍馬の奥僧正が崖と云ところへ……
그러는 동안 우시와카 님은 구라마 깊숙이 소조가가케(僧正が崖)라는 곳으로……
幸若舞曲「未来記」

㉣去程に、判官、驕る平家を三年三月に攻め靡け……
그러던 중에 호간(判官)은 오만한 헤이케(平家)를 3년 3월에 물리쳐……
幸若舞曲「腰越」

㉤さる間、判官、明けければ……
그러는 동안 호간은 해가 밝자……
幸若舞曲「堀川夜討」

㉥さるほどに、判官、内裏を退出ましまして……
그러던 중에 호간은 궁에서 퇴출하시어……
幸若舞曲「四国落」

㉦去程に、判官、山伏の姿をまなび……
그러던 중에 호간은 야마부시(山伏)의 차림으로 변장하고……
幸若舞曲「富樫」

㉧さるほどに、判官、山伏の姿をまなび……
그러던 중에 호간은 야마부시의 차림으로 변장하고……
幸若舞曲「八島」

㉨去程に、鎌倉殿、梶原を召され……
그러던 중에 가마쿠라 님(鎌倉殿)은 가지와라(梶原)를 부르시어……
幸若舞曲「高館」

27)「常盤」「常磐」「常葉」 등 작품에 따라 표기가 다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와카부쿄쿠의 호간모노는 각각 독립된 작품이면서도 그것을 총괄하면 하나의 일대기와 같은 형태를 이룬다고 할 수 있고, 혹은 타 장르 문예나 널리 유포된 전설 속에서 이미 대중에 각인된 지식을 의지했다고도 할 수 있다. 노 역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니시와키 데쓰오(西脇哲夫) 등은 당시의 관객에게는 이 이야기에 대한 공통 인식이 있어 이와 같은 우시와카의 대사를 「설명 없이 이해 가능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28]

그러나 등장인물은커녕 곡에서 한 마디 언급도 없는 「어머니」라거나, 구라마데라의 지고인 그가 「구조의 저택」으로 향했다는 것은 시노다 준이치(信多純一)의 지적대로 다소 당돌한 감이 없지 않다.[29] 그리고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현재 간제류에 한하여 고가키(小書)[30]로 남아 있는 <후에노마키>이다.

<하시벤케이>의 전장 대신 삽입되는 <후에노마키>에는 벤케이가 등장하지 않고, 우시와카의 모친인 도키와 고젠이 시테로서 아들의 쓰지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요시쓰네의 센닌기리 전설 수용에 있어서는 <하시벤케이>의 전장과 일치하며, 그것을 퇴치하겠다고 나서는 벤케이와 달리, 도키와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우시와카를 훈계한다.

シテ 「いやいやおことの心を見るに、思ふといふも空言よ……(中略)……学問をこそせざらめ、夜な夜な五条の橋に出で、人を失ふよしを聞くぞとよ。誠さやうにあるならば、母と思ふな子とも又、

能<笛の巻>

우시와카는 도키와의 꾸중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태어나자마자 부친을 잃

28) 西脇哲夫(1977)「「笛の巻」出典考」『観世』44(12)、檜書店、p.5
29) 信多純一(1987)「『橋弁慶』の基底」『観世』54(7)、檜書店、p.26
30) 노가쿠(能楽)에서 곡명의 왼쪽 아래에 작게 씌어있는 특수연출(特殊演出)의 표기. 또는 그 연출 형태. 고가키(小書)가 불으면 사장(詞章)・분장(扮装)・연기(演技) 등이 변화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 헤이케의 세상에서 숨어 살게 된 그의 가련한 처지가 묘사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들여 구라마데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하시벤케이> 후장의 「어머니의 말씀 무거우니」라는 대사는 이 <후에노마키>의 내용에서 연유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마지막의 「구조의 저택」이라는 대사도 구라마데라로는 벤케이를 데려갈 수 없는 우시와카가 대신 도키와의 저택[31]으로 향한 것이리라 추측된다.

이렇듯 <하시벤케이>의 대사와 <후에노마키>의 내용이 맞물리는 양상을 보면, <하시벤케이>의 성립 당시에는 본래 <후에노마키>의 내용이 접속한 형태였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하시벤케이>의 전장에 <후에노마키>가 접속한 형태, 즉 ㉠도키와의 교훈담→㉡벤케이와 종자의 대화→㉢우시와카와 벤케이의 대결이라는 3단 구성을 취하는 우타이본[32]도 남아 있어, <하시벤케이>가 이와 같은 형태를 취했던 시기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제시되었다.[33] 그러나 니시와키 데쓰오가 당시의 공통 인식에 근거한 생략의 가능성을 거론한 바와 같이, <하시벤케이>의 원형을 파악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될 수 없다.

게다가 <후에노마키>가 접속함으로써 <하시벤케이> 후장의 어색한 대사의 출처는 해결되나, <후에노마키>와 <하시벤케이> 후장의 우시와카의 행동에 괴리가 생기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도키와의 훈계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반성한 그 날로 다시 쓰지기리에 나서 벤케이와 대결을 펼치고, 그 결과 부하로 삼은 그를 하필이면 모친에게로 데려간다는, <후에노마키>에서 <하시벤케이> 후장으로 이어지는 우시와카의 행동은 도저히 자연스런 연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립 당시부터 이런 구성을 취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카이는 <후에노마키>로부터 <하시벤케이>에 이르는 각 단의 성격을 분석하여, 현행곡과 비슷한 형태의 <하시벤케이>가 성립한 후 <후에노마키>가 접속

31) 「구조(九条)」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저택의 위치를 나타낸다기보다 도키와(常磐)가 구조인(九条院) 후지와라노 데이시(藤原呈子)의 시녀 출신이라는 것에 유래하여 그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32) 『金春祥鳳本八郎本転写三番綴本』(野坂家蔵)、『岩本秀清節付下掛り謡本』(法政大学能楽研究所蔵)、『上掛り番外謡五十八冊本』(国学院大学蔵)

33) 伊海孝充(2004) 「謡曲<橋弁慶>の展開 —牛若・弁慶邂逅譚の一視点—」 『日本文学誌要』69、法政大学国文学会、p.3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며 <하시벤케이> 후장에 문제의 구절이 삽입되고, 이후 다시 <후에노마키>가 분리되며 삽입된 부분은 남아 현행곡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다.[34] 본고에서도 해당 의견에 동의하며, 이상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하시벤케이>와 <후에노마키>의 접속 및 분리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후에노마키>는 제목 그대로 「피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시와카는 도키와의 훈계를 받아들여 절로 돌아가겠노라 약속하고, 돌연 자신이 지닌 피리에 대한 질문을 꺼낸다.

고카타 「어머님의 말씀이 무거우니, 날이 밝으면 절로 돌아가겠소. 그런데 이 피리를 얻게 된 연고가 있다니, 어떠한 내력인지요.

子方 「母の仰の重ければ、明けなば寺へ登るべし。さりながら此笛に、えたる便のあるぞとは、いかなる謂候ふぞ。

能<笛の巻>

전후 맥락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화제 전환이다. 물론 <하시벤케이>의 후장에도 피리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만일 처음부터 <후에노마키>가 <하시벤케이>에 접속한 형태였다면, 위에서 다룬 인물상의 모순과 더불어 전장에서 언급된 피리에 대한 내용이 이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후에노마키>는 성립 이후 별도로 창작되어 접속했다가 다시 분리되었다고 보는 쪽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후에노마키>가 또 하나의 전장으로 제작된, 그리고 제거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피리라는 소재가 지닌 예능적, 미적 요소에 기인한다. 요시쓰네의 피리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목을 지닌 고와카부쿄쿠 「후에노마키(笛の巻)」에서 그 내력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고와카부쿄쿠 「후에노마키」는 요시쓰네의 쓰지기리나 도키와의 훈계 등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구라마에서 학문에 열중하는 우시와카에게 도키와가 피리를 사 주고, 우시와카가 그 피리를 판 자를 찾아가 그에 대한 유래를 듣는다는 단순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후에노마키>와의 선후관계는 불명이나 신비한 피리의 소유자로서 예능에 대한 소양을 강조하여 요시

34) 상게논문 pp.34-4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쓰네에게 예술적, 미적 가치를 부여하려 한 의도를 짐작케 한다. 유서 깊은 악기를 통한 예술의 재능 등으로 캐릭터의 미적 가치를 더하고자 한 시도는 멀게는 『우쓰호모노가타리(宇津保物語)』로부터 가까이는 노 <아쓰모리(敦盛)>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와카부쿄쿠 「후에노마키」는 오로지 피리의 전승을 말하는 이야기이며, 그 피리와 벤케이와의 만남을 연결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후에노마키>의 작자가 전후 구성을 무시하고 무작정 피리에 대한 내용을 끼워 넣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에 피리가 등장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기케이키』와 오토기조시 『벤케이모노가타리(弁慶物語)』 등을 통하여 추측 가능하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두 사람의 대결이 1회로 끝나지 않고 2, 3회에 걸쳐 나타나며, <하시벤케이>와 반대로 벤케이의 센본우바이 전설을 수용했다는 것에 있다.[35] 천 번째의 칼을 요시쓰네(우시와카)에게서 빼앗으려는 벤케이가 그를 노리는 중에 요시쓰네가 「피리를 불며」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요시쓰네에 도전하고 패하는 벤케이의 모습은 거칠고 익살스런 인상으로 묘사되며, 피리를 불며 나타나는 요시쓰네 쪽은 우아한 귀공자와도 같은 모습이다. 이로써 「피리」라는 소재가 하시벤케이 전설에 삽입된 과정을 짐작할 수 있으며, <후에노마키>의 우시와카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대사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카타 「이보게 하네다. 어머님의 말씀이 무거우니, 날이 밝으면 절로 돌아가겠소. 오늘 밤까지라니 아쉽게 여겨, 고조의 다리에 나가 서서 달을 바라보려 하오.

子方 「いかに羽田。母の仰の重ければ、明けなば寺へ登るべし。今宵ばかりの名残なれば、五条の橋に出で忽ちに月を眺めうずるにてあるぞ。

能<笛の巻>

이것은 <하시벤케이> 후장의 [잇세이]와도 그 취향이 일치한다.

35) 『벤케이모노가타리』의 경우 앞의 각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시쓰네의 쓰지기리 전설도 함께 수용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카타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이 무거우니, 날이 밝으면 절로 돌아가겠소. 오늘 밤까지라니 아쉽게 여겨, 고조의 다리에 나가 서서 찰랑이는 강 물결 더불어 서서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리라. 밤물결 일고, 공기가 일렁이니 밤바람 불고, 밤이 되니 스미는 가을바람아.

子方 「さても牛若は母の仰の重ければ、明けなば寺へのぼるべし。今宵ばかりの名残なれば、五条の橋に立ち出でて、川浪そへて立ち待ちに、月の光を待つべしと。夕波の、気色はそれか夜嵐の、夕程なき秋の風。

能<橋弁慶>

제본 및 현행곡에서도 그 유파에 따라 이동이 현저한 부분이나 풍아한 분위기를 목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특별히 다르지 않다. 도키와를 등장시킴으로써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는 반강제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소년의 가련함을 부각하고, 피리라는 소재와 서정적인 대사로 그의 우아함을 강조한다. <후에노마키>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요시쓰네의 행동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그의 인물상에 풍류적·미적 요소를 더하려 한 시도로 추측된다.

그러나 「피리 소리」는 『기케이키』 『벤케이모노가타리』 등과 같이, 싸움의 주도자가 벤케이 쪽일 때 벤케이가 요시쓰네를 인식하는 신호이다. 그러나 <하시벤케이>는 「요시쓰네」가 아닌 「우시와카」를 택했기에, 전술한 바와 같이 싸움의 주도자도 우시와카가 되어야 했다. 또한 후장의 우시와카는 『기케이키』의 요시쓰네 등과 달리 무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스기누를 뒤집어쓰고 벤케이를 노린다. 곧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는 것이다. 쓰지기리를 노리는 자, 정체를 감추고자 하는 자가 피리를 불어 타인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피리와 함께 등장하는 요시쓰네」와 노 <하시벤케이>는 애당초 결합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시와카가 피리를 부는 장면은 묘사할 수 없었고, 피리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만으로 『기케이키』 『벤케이모노가타리』 등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덧붙이려 했을 것이다.

이카이는 볼거리를 최후의 기리아이(斬合) 장면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전장으로 삼았던 <후에노마키>를 다시 제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36] 물론 현행곡 <하시벤케이>는 그 줄거리보다는 시테와 고카타의 대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곡이고, 요시쓰네와 벤케이의 만남→대결→주종의 계약이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내용이 하시벤케이 전설의 기본 설정인 만큼 설득력이 강한 가설이다. 그러나 우시와카의 성격적 불일치나 부자연스러운 피리의 화제 등은 본래 <후에노마키>의 접속이 무리한 각색이었음을 짐작케 하고, 결국 내용적으로도 <하시벤케이>와 <후에노마키>는 전체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없었기에 고가키라는 제한적 형태로 간제류에만 남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이렇듯 뚜렷한 전후의 모순은, 그것이 단순히 억지스런 각색이었다기보다 당시 이와 같은 요시쓰네 이미지가 유행했으며, 본곡에서도 모순을 무릅쓰고 그것을 받아들여 요시쓰네의 인물상을 한층 입체화·미화하고자 했던 의도라 생각할 수 있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일반적으로 고조 다리에서의 우시와카마루와 벤케이의 대결로 인식되고 있는 하시벤케이 전설에는 사실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기케이키』나 오토기조시 등 현존하는 작품을 통해서도 해당 전설이 각기 다른 형태로 수용·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 <하시벤케이>도 그 지류 중 하나로, 본곡의 등장이야말로 이 전설에 거한과 싸우는 영민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이미지를 굳게 뿌리내리게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노 <하시벤케이>는 시테와 고카타의 기리아이를 피로하기 위한 극히 단순한 곡이나, 그 원류라 할 수 있는 하시벤케이 전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줄기로 통일성 없이 뻗어 나갔고, 관객을 염두에 둔 무대화에 있어 본곡이 그 중 어떤 방향을 택하였는가에 대한 문제는 당시 작자의 의도와 대중의 취향을 짐작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제본의 이동과 상황 설명이 결여된 대사 등을 볼 때 성립 후에도 상당한 개조 내지 변형 단계를 거쳤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간제류의 고가키로 남아 있는 <후에노마키>와의 관계를 통하여 본곡의 개작 수순 및 그 이유를 가늠해 보았다.

우시와카와 벤케이의 대결 외에 특별한 내용적 굴곡이 없는 이 곡에서 굳이

36) 伊海孝充(2011)『切合能の研究』檜書店、pp.305-30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와 같은 개변이 요구되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인공인 벤케이와의 대결 끝에 그를 쓰러뜨리는 불가사의한 「소년」으로 등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악」의 성향을 띠게 된 요시쓰네를 미화하기 위한 시도였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를 보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인물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던 후세의 욕구가 작용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텍스트

麻原美子・北原保雄 校注(1994) 新日本古典文学大系59『舞の本』岩波書店
梶原正昭 校注・訳(2008)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62『義経記』小学館
梶原正昭・山下宏明 校注(1998) 新日本古典文学大系45『平家物語 下』岩波書店
島津久基 校訂(1936)『お伽草子』岩波書店
野々村戒三 編・大谷篤蔵 補訂(1978)『謡曲二百五十番集』赤尾照文堂

단행본

伊海孝充(2011)『切合能の研究』檜書店、pp.305-306
島津久基(1977、再版)『義経伝説と文学』大学堂書店、pp.143-144 pp.307-308 pp.312-313
이어령(1994, 재판)『축소지향의 일본인』기린원, p.22

학술논문

浅見和彦(1994)「都市人の夢と遊楽 —「義経記」と「一寸法師」—」『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39(1)、学灯社、pp.54-60
伊海孝充(2004)「謡曲<橋弁慶>の展開 —牛若・弁慶邂逅譚の一視点—」『日本文学誌要』69、法政大学国文学会、pp.33-43
信多純一(1987)「『橋弁慶』の基底」『観世』54(7)、檜書店、p.26
中村一基(2007) 「飛翔する≪笛吹き童子≫～芸能神義経の誕生～」 『岩大語文』12、岩手大学、p.3
西脇哲夫(1977)「笛の巻」出典考」『観世』44(12)、檜書店、p.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투고일 : 2013.06.30
❖ 심사완료일 : 2013.08.10
❖ 게재확정일 : 2013.08.16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